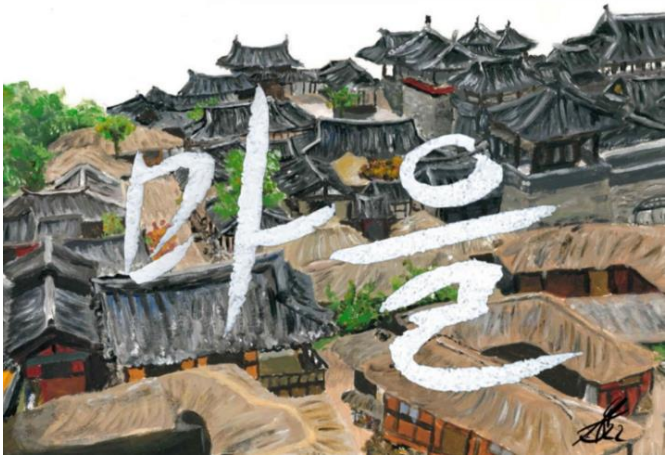
2022 King Sejong Institute Hangul-Tag

튀빙겐 세종학당 한글날 행사 - “Meine koreanische Postkarte” – Gewinner

1 등. Teresa Feller

주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나는 아주 약한 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하고 폐가 코르티손이 길었어요. 나는 폐렴에 자주 걸려 대학병원의 자주 찾아요. 최근에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신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신부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 필요해요. 아마도 신장에서 무언가를 제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인용문이 저에게 힘을 줘요. 저는 나중에 고려대학교와 가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찾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할 거예요!

2 등. Antonia Süßenguth



주제: 마을
저한테 '마을' 은 간단하고 조용한 생활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때 작은 동네에 살아서 '마을' 는 집 처럼 느껴지고 듣는 동안에 가족이 생각나요. 소중한 추억이 생각나서 이 단어가 저한테 아주 중요해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정말 친절하고 주위와 경치가 아름다워요. '마을' 을 말할때 소리도 아주 좋아해요. 이 예쁜 단어를 말하는 것은 재미있고 제 생각에는 '마을' 이라는 단어가 아주 귀여워요.

3 등. Marieke Hormann

주제: "오늘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옵니다.
꽉 막힌 인생에서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글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출근할 때 지나가는 교회의 광고판에 적혀 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지친 주인공이 이 광고판을 볼 때 힘이 납니다. 주인공들과 공감하는 저에게도 힘이 되는 글입니다.